



# (주) 동방아그로

1971년 '동방농약' 출발, '오직 농민과 함께' 모토 지켜와  
은나노기술 활용, 나노바이오(주) 투자 · 친환경 무기농자재 NSS · NSS-F 출시

**은** 해로 창립 36주년을 맞는 (주)동방아그로. 우수한 작물보호제 개발 공급을 통한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온 국내 기업이다. 1971년 동방농약으로 출발 '오직 농민과 함께' 라는 의지와 정성으로 좋은 농약 만들기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엄병만)의 36년여의 이력은 곳곳에 묻어있다.



1984년 3년 연속 수출의 날을 맞아 200만 \$, 500만\$, 1,000만\$ '수출의 탑' 상을 수상하였다. 동방아그로 상호를 변경한 1990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1991년 본사를 신축이전한데 이어 이듬해엔 부여공장 및 기술연구소를 신축 이전하는 등 일신 우일신을 거듭해 어느새 업계 3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2000년에는 대통령 산업포장을, 2001년에 충남기업인대회 우수기업인상을 받는 등

의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끊임없는 제품개발 및 대농민 서비스활동의 소중한 산물이다.

이렇듯 설립 이래 '오직 농민과 함께' 라는 신념으로 작물보호산업에만 진력해 온 동방아그로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대농민 서비스 정신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는 농약제품을 개발, 보급함을 최우선으로 삼고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기술연구와 경영혁신을 통한 세계속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환경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21세기를 활기차게 개척해 나가는 기업으로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 친환경농자재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투자

은나노기술 활용, 나노바이오(주) 투자  
친환경 무기농자재 NSS · NSS-F 출시

(주)동방아그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요구



및 정부의 친환경육성 정책에 때를 맞추어 지난 2005년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06년에는 나노바이오(주)에 투자함으로써 나노기술을 활용한 항균기능 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등 친환경농자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은나노 NSS와 NSS-F(항균능력이 우수한 친환경 무기농자재) 등의 친환경 농자재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무분별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 제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우수한 친환경농자재를 개발, 보급코자 하는 동방아그로의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 대농민 마케팅 및 서비스 활동 강화 새로운 정보 및 영농기술 전달자 역할 다가가는 서비스로 실천적 도우미

동방아그로는 또 변화하는 농촌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농촌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과 활동하는 등 농촌의 관심사와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대농업인, 시판상, 특수조합, 농협직원, 전문지도자 등 농업에 관한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 개최, 새로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그 효과와 경제성을 시현하는 전시포 운영 및 사용상의 꾸준한 기술지도를 통한 보다 안전하고 풍성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믿음을 더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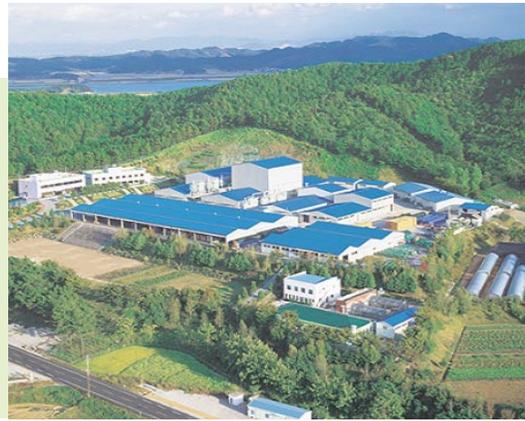
### 지속적 연구개발 및 생산자동화로 우수제품 생산 친환경 · 생력화 제품개발 위해 진력 10제형 · 15생산라인의 자동화 시설 구축

1987년에 설립, 1992년에 현재의 부여로 이전한 기술연구소는 2백30여평의 연구동과 유리온실 2동을 포함한 시험포를 2만여평을 지니고 있으며 살균, 살충, 제초, 제제, 잔류 및 생태독성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작물보호제 및





**‘오직 농민과 함께’ 라는 신념으로 작물보호산업에만  
진력해 온 동방아그로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대농민  
서비스 정신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는 농약제  
품을 개발, 보급함을 최우선으로 삼고있다.**



친환경농자재 개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연구와 실험의 기반 위에서 생산되는 동방아그로의 제품은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실제 사용에 따른 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농촌이 노령화되어 작물 보호제 사용의 편리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노동력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용출조절용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꾸준히 거양해온 동방아그로는 생력화제형 개발과 친환경 농자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2년 부여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 생산 설비에 꾸준히 투자를 기울임으로써 10개 제형 15개 생산라인의 최신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 환경관리부문에서도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기시설 3종과 수질 배출시설 5종에 해당하는 부여공장은 배출시설 관리인을 선임, 시설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기질관리는 여과, 흡착, 흡수 등 완벽한 방지시설을 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 수질관리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용하여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는 물론 활성탄 흡착을 통한 최신 정화시설을 가동, 맑고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함으로써 금강하천의 주변환경을 보전하는 등 환경민원 제로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부여공장은 각각 4개동의 공장동과 원부원료 창고 및 3개동의 제품창고, 2개동의 동력동, 각각 1개동의 사무동, 후생관동, 폐수처리장 등 대지면적만도 2만5천평에 이르며 연간 4만여톤을 생산 할 수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시설투자에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며 입상수화제 라인을 증설하고 생력화를 위한 점보제 포장을 위한 수용성 PVC필름 포장기를 설치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최신 생산설비 투자와 품질개선 연구를 통하여 최고 품질의 작물보호제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방아그로는 언제나 고품질의 제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동방아그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나갈 것이며 더 좋은 제품으로 기업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감은 물론 농업인들의 풍요로운 웃음에 더 큰 만족을 더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